

大巡思想과 人類의 未來

裴圭漢*

目 次

- I. 序 論
- II. 大巡思想의 起源과 現代의 意義
 - 1. 大巡思想의 起源
 - 2. 大巡思想의 現代의 意義
- III. 世界變化와 人類의 未來에 關한 既存의 見解
 - 1. 未來經濟學에서 본 人類의 未來
 - 2. 中國思想에서 본 世界의 進歩와 循環
 - 3. 神話를 통해 본 世界의 創造와 終末觀
 - 4. 유대·그리스도교의 終末觀
- IV. 大巡思想으로 본 宇宙變化와 人類의 未來
 - 1. 匡救天下의 救世觀
 - 2. 宇宙改造의 大思想으로 본 宇宙變化와 人類의 未來
 - (1) 宇宙改造의 過程, 三界大巡
 - (2) 宇宙改造의 實行, 天地公事
 - (3) 宇宙改造의 實踐原理, 解冤相生
 - (4) 宇宙變化와 人類未來의 實狀, 後天仙境世界

*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I. 序 論

증산성사(甌山聖師)는 구한말인 1871년 탄강하여 1909년 화천할 때까지, 광구천하(匡救天下)의 인류대망을 시현키 위해 天·地·人 삼계(三界)를 근원적으로 뜯어 고침으로써 우주개조(宇宙改造)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실행한 위대한 사상가(思想家)요, 신인(神人)이다. 뿐만아니라 그를 신앙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증산성사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제도와 무지로 부터 고통 받아온 민중들의 하느님이요, 상제(上帝)요, 미륵불이요, 개혁주인 것이다.

현대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는 인류가 안고 있는 치유하지 못할 병으로부터 구제와 구원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류는 세계 발전방향과 우주변화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기말적인 말세론(末世論)과 종말론(終末論)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증산성사로부터 비롯된 대순사상(大巡思想)은 돌과구를 찾지 못한 인류에게 후천선경건설(後天仙境建設)의 우주화평시대를 예시하여 희망과 비전이 있는 미래사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순사상으로 본 우주변화와 인류의 미래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대순사상(大巡思想)의 기원과 그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세계변화와 인류의 미래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대순사상으로 본 우주변화와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시 증산성사에 의한 광구천하(匡球天下)의 구세관을 정리하고 둘째, 우주개조(宇宙改造)의 과정으로서의 삼계대순(三界大巡), 개조의 실행으로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우주개조의 실천원리로서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우주변화와 인류미래의 실상으로서의 후천선경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의 서술은 대순사상의 광대함과 심오함으로 인한 본인의 부족감 때문에 학문적 견해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의 견해도 불가피하게 가미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Ⅱ. 大巡思想의 起源과 現代的 意義

1. 大巡思想의 起源

대순사상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탄이 극도에 다달았던 조선말엽인 1871년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씨가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제한 강증산성사(姜甌山聖師)로 부터 비롯된다.

강증산성사는 원래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 불(佛), 보살(菩薩)들의 호소와 간청에 의해 천하를 대순하다가 인간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의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렸으나 대도(大道)의 참 뜻을 능히 밝히지 못하므로 그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직접 인간으로 강세(降世)한 우주 만물의 주신(主神)임을 스스로 선포한 신인(神人)이다.

증산성사는 인간으로서의 생을 다하고 1909년 화천할 때까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造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順眞理)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승화시키면 정치적 세계평화와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널리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¹⁾를 선포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를 위한 우주변화와 세계변화 그리고 인간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작업으로서의 삼계공사(三界公事)·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증산성사의 대순사상과 삼계공사에 관련된 방대하고도 심원한 진리이며 사상체계라 할 수 있다.

1) 대순진리회 요람 참조

2. 大巡思想의 現代的 意義

대순사상은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와 인류를 널리 구하기 위한 증산성사의 고뇌에 찬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와 관련된 진리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을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볼수 있다.

대순사상의 우주관으로는 천하대순, 천지공사, 후천개벽사상이 있고 인생관으로는 인존평등, 해원상생, 보은협동사상이 있으며 사회관으로는 원시반본, 만국활계, 조화선경사상이 있다.

천하대순은 우주의 실체를 밝힌 것이고 천지공사는 우주의 개조를 밝힌 것이며 후천개벽은 우주의 진화를 밝힌 것이다.²⁾ 또한 인존평등은 미래세계에서의 인간의 완성과 본성을 밝힌 것이고, 해원상생은 천·지·인 만물의 이상적 상호관계를 밝힌 것이며 보은협동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원리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원시반본은 우주와 세계변화의 운동원리를 드러낸 것이고 만국활계는 인간사회의 구제를 밝힌 것이며 조화선경은 천·지·인 개조에 의한 이상적 미래세계의 구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대순사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도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내재된 우주·세계·인간의 변화·발전에 대한 수많은 메세지는 현대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대순사상은 상극에 지배되어있는 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인류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근원적으로청산하는 상생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³⁾

에서와 같이 증산성사가 인간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의 근원을 찾아내

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147면

3) 「典經」, 공사 1장 3절

고, 이러한 세계의 참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 부터 원을 풀어야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⁴⁾

고 한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대순사상은 참화가 끊이지 않는 상극적 세계구조를 영원한 화평이 실현되는 상생적 세계구조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원리인 해원(解冤)의 법리를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증산성사는

「예로 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처결하면서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리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⁵⁾

고 하여 인류의 원의 근원과 그 해결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증산성사 스스로 실질적으로 천지간에 쌓인 모든 원을 풀어가는 대역사(大役事)로써 해원공사(解冤公事)를 실행했다는 사실에서 해원의 법리가 단순한 이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원리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4) 『典經』, 공사 1장 3절

5) 『典經』, 공사 3장 4절

있는 것이다.

셋째, 대순사상은 인류가 존재해온 현상세계를 초자연적, 자연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측면 등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입장에서 진단한, 통합과학적 요소와 초과학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 측면에 대해서 증산성사는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되느니라」 6)

라고 하여 인간세계가 신명세계와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두 세계가 유기적 입장에서 공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때 신명계의 변화와 인간계의 변화가 연속선상에 있음을 나타내며 인간세계의 문제가 신명세계의 문제로 부터 비롯됨을 밝힌 획기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볼때,

「天用雨露之薄則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博則 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 必有萬事之怨」 7)

위와 같은 증산성사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작용력이 세계와 만물과 모든일에 고르게 미치지 못할 때 천지간에 부정적 에너지가 발생하여 天·地·人이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기(地氣)가 통일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생각이 연결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하고 투쟁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8)

6) 「典經」, 공사 1장 5절

7) 「典經」, 행록 3장 44절

8) 「典經」, 공사 3장 5절

에서 보듯이 자연에 내재된 색다른 기운에 의하여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이질감이 발생하고 이에따른 인간의 반목쟁투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증산성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⁹⁾

즉 이것은 고대(古代)에는 신도(神道)와 성인의 도(道)에 바탕을 둔 사람이 성인과 영웅의 도를 겸비하여 정치와 백성의 교육을 관장하여 무리가 없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정치와 교육이 따로 이루어짐으로써 만인이 참된 법을 찾지 못하여 혼란을 겪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종교·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 났도다」¹⁰⁾

와 같이 각 민족의 고유한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역사적 토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민족과 국가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은 세계발전의 원리를 통일의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세계발전과 인류문명의 진보가 대립·분열·분화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의 인류발전은 조화·통일·통합의 원리에 의해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9) 「典經」, 교법 3장 26절

10) 「典經」, 교법 3장 23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¹¹⁾

에서 보듯이, 이것은 삼계가 서로 통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세상에 재앙이 생겼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가 서로 통하지 않고 분열·분화된 것을 통일·통합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에서 찾고 있다. 이 후천선경세계는 인간의 개별적 생의 결과에 따라 신의 은총으로 사후(死後)에 간다고 하는 '천당'이나 '극락'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인류의 미래에서 실현될 지상에서의 선경세계(仙境世界)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대순사상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의의는 그동안 인류가 세계변화의 노정에서 품어 왔던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증산성사의 원대한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의 과정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인류의 미래가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11) 「典經」, 예시 8절

Ⅲ. 世界變化와 人類의 未來에 관한

既存의 見解

1. 未來經濟學에서 본 人類의 未來

미국인들은 현재 미래에 관해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최후의 심판날이 온다고 하는 예언자들은 세계의 종말이 곧 닥치지는 않을지라도 머지않아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들은 재난(災難)이 여섯가지 다른 원천으로부터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한편 낙관주의자들은 앞으로 200년간 안에 인류가 겪어 온 기근(식량난)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되고, 필수품과 사치품의 일상적인 구입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며, 여가를 즐기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학자들의 해석 중에 누가 옳은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 먼저 암울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암담한 예측은 아마도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주장일 것이다. 1972년 로마클럽의 연구는 만약 현재의 인구, 산업화, 공해, 식량생산 및 자원고갈의 세계적인 추세가 계속될 경우 대략 100년안에 이 지구는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과는 돌발적이고 조정이 불가능한 인구 및 산업능력의 감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포함한 알려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이 오는 100년 안에 고갈될 것이고, 40억을 약간 상회하는 현재의 인구 수준이 약 150억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성장에 관한 암울한 예측을 고려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울한 예측의 끝은 아니다. 로마클럽은 인구성장률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0년 안에 기근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라고 로마클럽은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의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지역을 단순히 굶어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결정해야 하

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태학적 재난의 징후가 존재하며 해양은 어류나 다른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무생물상태가 될 것이라든지, 지구 성층권을 둘러싼 대기의 오염이 심화되어 지구에 도달하는 일조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결과 방사선이 증가하거나 지구기온의 변화가 매우 커져서 인류는 멸종하게 된다고 하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아직 수소폭탄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려된다면 인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반면 희망적인 미래학자들은 정반대의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1976년 허드슨재단(Hudson Insitute)에 의해서 발간된 『향후 2백년 (The Next Two Hundred Years)』이라는 책에서, 칸(Herman Kahn)은 인류미래가 장미빛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76년까지는 1976년 가격으로 계산된 일인당소득이 세계 선진국의 경우 거의 50,000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모든 인구의 평균 일인당소득은 10,000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인구증가율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 즉 인구가 현재 절정에 달했으며 그 증가율이 미래에는 감소하리라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칸은 또한 잠재적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석유와 같이 재생 불가능한 광물자원이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 보다 더 긴 잠재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는 석유의 미래 보존량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석유가 처음 개발된 이래 계속 세상에 널리 퍼져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석유가 고갈할 것이라는 경고는 드레이크(Drake)가 1세기 전 펜실바니아주 티투스빌에서 첫 번째 유정을 개발한 이후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잠재적인 석탄자원, 혈암유(頁岩油), 타르모래 등을 살펴볼 때 칸은 잠재된 막대한 에너지의 공급을 예측했다. 그는 다른 기본적 광산물도 같은 조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원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원가격의 상승이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대체적인 자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그는 식량공급에 관해서도, 아직 경작되고 있지 않고 남아 있는 사용 가능한 땅의 존재 및 아시아의 녹색혁명(綠色革命)과 같은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신기술을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 생존을 방해하는 공해(公害)를 조절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인류의 노력에 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칸은 궁극적인 인간재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적인 적응력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계는 그간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 1980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위탁된 한 연구인 『2000년대 지구(The Global 2000 Study)』는 로마클럽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00년까지는 전세계적 재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암울한 결론에 대해, 일리노이대 사이몬(Julian Simon)교수는 『최후의 자원(The Ultimate Resources)』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 결론은 근거가 없으며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견해 중 누가 옳은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은 수소폭탄을 사용한 전쟁이나, 화학약품·농약 사용의 부작용 그리고 신기술에 의한 공해효과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논외로 하더라도 두견해의 차는 다음의 두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첫째, 우리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신기술을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개발할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고갈가능한 자원에 대한 대체재를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5년동안의 경험은 그러한 개발형태와 일치한다. 즉, 우리들이 과거에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 희소성으로 인해 한 자원의 가격이 증가할 때는, 그 자원의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증거는 일관된 것이었다. 우리는 자연자원의 실질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증거는 이제까지 대체재를 개발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0년간 보았듯이 농업기술을 계속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 농업 및 식량공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200여년 전에 비관적인 입장에서 맬더스가 예견했던 기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견해가 미래에 지켜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와 같이 고정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고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점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미래의 인구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인구가 지난 세기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지구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산출량과 생산성이 인구성장을 상회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저개발국의 인구증가율은 번번히 연간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율이 계속 될 경우 수백년 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깨위에 서 있는 세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을 가질만한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즉 지난 몇년 간 처음으로 인구증가율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이 인구증가율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라면 우리는 인구증가율의 상당한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때 인구와 생산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가격기구가 시장에서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다.

2. 中國思想에서 본 世界의 進歩와 循環

중국사상은 한민족(漢民族)이 중심이 된 중국민족의 역사와 생활의 소산물이다. 이러한 중국사상가운데 자연발전과 인류역사의 발전법칙에 관한 주요 논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진보와 미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음양설(陰陽說)에 의한 세계조화의 논리를 보면 즉 세계와 사물의 변화는 음양과 오행(五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즉 음과 양의 이원적 요소가, 水 火 木 金 土의 오행의 상승·상극·상생에 의해서 갈마들면서 조화되어 우주의 삼라만상이 화생(化生)한다는 것이다. 남과 여의 구

12) Douglas C. North, R. L. Miller, The Economics of Public Issues, (1985)

별이 음과 양의 구별이기도 하지만, 이 상대적인 것이 교합되어 자손을 번창하는 것도 이런 조화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주속의 모든 이원적인 요소도 이런 조화에 의해서 서로 교합되고 분리되면서 인류사회와 자연의 역사가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발전은 언제나 법칙을 가지고 있고, 자연속에서의 인류의 역사도, 이 자연의 발전법칙에 순응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적인 발전에 대해서 <史記> 太史公自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주의 변천은 소변(小變), 중변(中變), 대변(大變)이 있는데 소변(小變)은 30년 마다의 변화이고, 중변(中變)은 100년마다의 변천이며 대변(大變)은 500년마다의 변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3大變(1500년)이 지나면, 어떤 결정적인 변질을 가져오는데, 이런 우주의 변화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발전도 수응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요(堯)임금에서 은(殷)나라의 창시자인 탕왕(湯王)까지가 500년, 탕王에서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까지가 500년, 文王에서 孔子까지가 500년이라고 보고, 이런 3대변이야말로 공자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적 발전론과 인류역사의 자연예속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 전개는 역(易)의 상수론적(象數論的)인 전개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우주의 순환론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소강절(邵康節)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나오는 원회운세론(元會運世論)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청초(淸初)의 호위(胡渭)는 <역도명변(易圖明辨)>에서 소강절의 상수론(象數論)이라고 하는 수리적 역철학인 원회운세론(元會運世論)은, 역(易)의 원초적인 정신과 사상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당말(唐末)의 도사(道士)인 진박(陳搏)의 학(學)을 계승한 이지재(李之才)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 소강절의 역철학에 의해 저술한 朱子の <역학계몽(易學啓蒙)>도 실은 역(易)의 제대로의 정통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지만, 당시의 宋學(性理學)의 철학화가 불교, 도교의 영향에서 계발되었다고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원회운세론(元會運世論) 역시 당시의 사상적인 여

건에서 온 것임은 물론인 것이다.

이 원회운세론은, 그 근본을, 시간과 역사를 하나로 보면서 전개시켰다. 1세(世)는 30년, 1운(運)은 1세(世)를 12승한 것이고, 1회(會)는 1운(運)을 30승한 것이며, 1원(元)은 1회(會)를 다시 12승한 것이다. 따라서 1원(元)은 129,600년이 된다. 그리고 1원(元)의 전반은 양(陽)이고 후반은 음(陰)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원회운세(元會運世)는 각기 주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1원(元) 속에는 12회(會)가 있고, 각기의 1회(會)마다 30운(運)이 있으며, 또 각 운(運) 속에는 12세(世)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끝일 줄 모르는 우주사(宇宙史) 속에는 이 원(元)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고, 원(元) 속에는 회(會)가 순환하고 운(運)이 순환하며 세(世)가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강절은, 이 원회운세(元會運世)를 인류사에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원이 시작할 때, 첫 회기(會期)에 하늘이 생기고, 두 번째 회기(會期) 동안에 땅이 생겼으며, 세 번째 회기(會期)에 사람과 만물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소강절의 시대인 송대(宋代)는 원(元)의 전반의 양기(陽期)를 지나 후반의 음기(陰期)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후반 중에서도 12회(會) 중의 7회기(會期)에 들고 있어, 宋 神宗 熙寧元年(A.D. 1068)이야 말로, 바로 7회기(會期) 중의 제 12운, 제 2세의 제 15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류사는, 제 6회기 제 30운 제 9세의 극성기에 있었던 요(堯) 임금의 치세를 고비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런 쇠퇴가 계속되다가 제 11회기에는 사람과 만물이 끝이 나고, 제 12회기에 들면은 천지(天地)의 수명도 다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실의 원(元)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원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회운세론은 위학(緯學)에서 말하는 천운이 소변(小變)·중변(中變)·대변(大變)한다는 3대변설(3大變說)과도 비슷한 주기적인 세계순환론이다. 이외에도 <孟子>가 말한 「五百年必有王者興」(公孫丑下)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도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 즉 천운3대변설(天運3大變說)이나 맹자(孟子)의 경우는 천인상여설(天人相與說)의 입장에서 하늘과 사람, 우주사(宇宙史)와 인류사(人類史)를 합일시켜서 보지만,

소강절은 우주사와 인류사를 같이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우주사의 시간속에 인류사가 순환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사상에서 보이는 이같은 세계변화와 인류사의 변화에 대한 입장에서는 결국 인간 세상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생성·발전·쇠퇴·멸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불교에서의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유전설(流轉說)과도 같은 견해인 것이다.¹³⁾

3. 神話를 통해 본 世界의 創造와 終末觀

우주의 대이변에 관한 신화(神話)는 전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신화는 세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나 한쌍의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멸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홍수신화에 의한 세계변화의 이야기는 여러지역(아프리카에서는 극히 드뭅)에서 보여지고 있다.¹⁴⁾ 뿐만 아니라 다른 신화에서도 우주균형의 이변 - 지진, 화재, 산사태, 질병 등 - 에 의한 인류의 절멸을 말하고 있다.

만(E. H. Man)에 의하면, 안다만인들은 세계의 종말 후 낙원의 상태를 누리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다. 아메리카의 종말신화의 대부분은 (아즈텍족과 같이) 사이클설(순환설)이나 파괴에 뒤이어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는 신앙, 혹은 (북아메리카의 일부와 같이) 대이변을 거치지 않고 우주 개혁이 성취된다고 하는 신앙이 보여지고 있다.

아즈텍족의 전통에 의하면 세계는 이미 3, 4번 파괴되었고 4번째는 미래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초토우(Choctaw)족은 세계는 볼로 멸망하지만 인간의 혼은 되돌아 올 것이고, 뼈는 다시 육체의 옷을 입을 것이며, 다시 살아난 자는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살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체로키(Cherokee)족은 “세계는

13) 황원구, 「중국사상의 원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참조

14) Sir James George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London, 1919), Vol. 1, pp. 326-332 참조

노화되고, 피로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고, 줄은 끊어지며, 대지는 대양으로 침몰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카토(Kato)족은 “새로운 하늘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며 이것은 낡은 하늘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 하늘이 창조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⁵⁾

대체로 우주창조를 명확히 혹은 애매하게 시사하는 이러한 세계종말신화는 우주의 점차적 <쇠퇴>와 그 주기적 파괴와 재창조의 필요라고 하는 고대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유대 · 그리스도교의 終末觀

유대 · 그리스도교의 종말관(終末觀)의 비전은 극히 중요한 세계의 변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의 종말이 세계의 창조가 단 한번만 일어난 것 같이 단 한번만 일어난다고 보며, 대변혁 이후에 재출현하는 우주는 신이 시간의 시초에 창조한 우주와 같은 것이지만, 순화 · 갱신되고 본래의 영광에 복원하는 우주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상의 낙원은 다시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끝나쳐지는 때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유대 · 그리스도교는 다른 우주적인 종교와는 달리 세계의 종말이 구세주의 기적의 일부라고 믿는다. 이들에게 구세주의 도래는 바로 세계종말과 낙원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우주의 모든 갱신(更新)과 낙원회복은 종말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요한 묵시록은 “나는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았다. 먼저번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외치는 소리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 보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여 이 새로운 창조가 최초의 창조의 폐허 위에서 생겨날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15) H. B. Alexander, North American Mythology, Boston, 1920 참조

IV. 大巡思想으로 본 宇宙變化와

人類의 未來

1. 匡救天下의 救世觀

인류 역사를 들여다 보면, 누구든지 인간의 진보·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전쟁·가난·질병·천재지변 등의 부정적 측면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인류가 항상 미래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생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가져다 줄 의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은 문화(文化)와 관습(慣習) 및 지역적·시대적 특성에 따라 각기의 신(神)과 종교(宗教)를 창출하였으며, 그 신(神)과 종교(宗教)는 인간의 천부적 본성회복(本性回復)과 물리적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구원(救援)·구제(救濟)·구세(救世)의 상징으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이 아닌 신앙을 전제로 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구원·구제·구세의 실체인 신(神)은 실존하는 것이며, 그 실체가 설파하는 구세의 실현성도 때가 되면 다가 올 미래지사(未來之事)가 되는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위기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신앙인(信仰人) 내지는 수도인(修道人)의 관점에서 세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불과 백여년 전에 한국에서 탄강하여 天·地·人 삼계공사(三界公事) 즉, 우주변화의 대역사를 행한 증산선사(甞山聖師)의 법리(法理)는 인류가 대망해오던 구세의 진리요, 광구천하의 메시지인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구세·구원·제도의 종교적 표현은 광구천하(匡救天下)로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광구천하는 천·지·인 삼계(三界)의 본질이요, 원리인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가 무너져 바야흐로 인류가 진멸할 지경에 처했으므로 이를 하느님·상제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서

빈 면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구천(九天)에 계신 상제께 모든 신성·불·보살이 신명과 인간에 쌓인 겁액을 풀어줄 것을 간청함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천(九天)이라 함은 우주 최고위의 하늘세계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九라는 숫자가 자연수 중에서 최고의 수이며,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구천(九天)이라함은 소우주인 인간의 인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부분 중, 혼백이 거하는 니환궁이라는 혈이라고 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우주개조의 대사상으로 본 우주변화와 인류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아서 첫째, 우주개조의 진행과정으로서의 삼계대순(三界大巡) 둘째, 우주개조의 실행과정인 천지공사(天地公事) 셋째, 실천원리로서의 해원상생(解冤相生) 넷째, 인류의 미래에 구현될 실상인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에 의한 우주개조의 범위는 신명계와 인간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국 신명과 인간은 이원적이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물질 우주를 경영하는 심적 존재라고 볼 때, 대순사상에 의한 광구천하의 개념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가 아닌 우주적 구원과 구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宇宙改造의 大思想으로 본

宇宙變化와 人類의 未來

우주는 현대과학으로도 그 본질과 구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며 성인의 법설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창조론과 변화론이 공존하고 있고 팽창론과 수축론이 공존하고 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우주를 천지라고도 하며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를 합한 삼계(三界)라고도 한다. 그리고 三才라는 말도 천·지·인을 말하는데, 주역에서는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으며, 인도가 있다. 삼재는 천·지·인도이다」라고 하고, 중국 고사성어고(古事成語考)에서도 「천지는

사람과 함께 삼재라 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우주는 삼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대순사상에서의 우주개조도 삼계 대순의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증산성사의 삼계대순 속에는 우주개조의 대역사(大役事)인 천지공사가 실행되었으며, 해원상생의 대법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후천선경의 실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1) 宇宙改造의 過程, 三界大巡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은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典經』을 통해서 본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구천 → ② 서양대법국 → ③ 삼계주력 → ④ 천하대순 → ⑤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 → ⑥ 인세탄강 → ⑦ 금사사 미륵불 → ⑧ 구천

여기서 구천은 우주의 중심처로 최고위의 신격(神格)이 존재하는 곳이며, ②,④,⑤,⑦은 지계에서의 대순이며, ③은 구천을 떠난 천·지·인계의 대순이며, ⑥은 인계에서의 대순을 말한다.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구천의 상제가 모든 신명의 간절한 요청으로 천지우주를 구세키 위해 신성(聖神)으로서, 천계탐에 내려와서 삼계를 두루 살피고 지계·인계를 대순하다가 무명의 악소민족이 사는 한반도 금산사 미륵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신(聖身)으로서 39년간의 제세시에 인류에게 천지공사라는 전무후무한 희망찬 작업을 예시하고 다시 성신(聖神)의 형태로 금산사 미륵불에 임했다가 구천으로 화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산성사의 삼계대순의 경로인 것이다. 우주는 삼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삼계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성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살핌으로서는 완전한 구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계대순에 의한 미래관은 우주전체의 신명계와 인간계를 두루 살핌으로써 모색된 종합적이고도 본원적인 우주개조론인 것이다.

(2) 宇宙改造의 實行, 天地公事

증산성사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본격적으로 인간세계에서 펼쳤던 천지공사는 우주의 질서와 운행원리를 새롭게 조정한 것으로서 천지도수를 재편한 것이다. 천지도수는 우주만유가 운행·순환하는 질서요, 법칙이요, 그 때인 것이다.

증산성사는 여기에 관해

「선천(先天)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 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度數)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人事)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 신도(神道)로서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착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神道)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17)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때, 천지공사는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고 새 운수를 정하여 그것을 물샐 틈없이 굳건히 하면 때에 맞게 새로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인류구세의 실행이 우주질서에 부합되어 이루어 진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우주경영의 새질서를 구축한 것이며 신세계 운영의 원리와 체계를 다시 세운 원대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인, 한 국가, 인간계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계의 결실은 신명계(神明界)의 조화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우주구원의 대망도 신도(神道)로 부터 풀어나가야 함을 증산성사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를 다시 세우는 일은 삼계(三界)의 일을 처결할 수 있는 삼계대권을 가지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다. 여기

17) 「典經」, 공사 1장 3절

에 대해 증산성사는

「... 나는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18)

고 하여 실로 천지를 개조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을 가진 신성한 신격(神格)으로서의 상제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말뿐인 이론이나 한낱 사상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말 그대로의 천지의 개조작업인 것이다. 증산성사는 제세시에 많은 천지공사를 처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를 보면 신명공사(神明公事), 개벽공사(開闢公事), 해원공사(解冤公事), 명부공사(冥府公事), 운회공사(運會公事), 교운공사(敎運公事), 조선국공사(朝鮮國公事), 의통공사(醫統公事), 도통공사(道通公事), 인존공사(人尊公事) 등이 있다.

결국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진멸지경에 빠진 삼계를 해원의 원리로 풀어내고 과거와는 달리 인간이 천지운행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인존의 세계를 구현하여 인간 중심의 우주시대를 가능케한 원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宇宙改造의 實踐原理, 解冤相生

천지에 존재하는 신명과 인간은 본래 평화적·상생적인 관계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道理)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천하에 원과 한이 맺히게 됨으로써 삼계가 참혹하게 변하게 된 것으로 증산성사는 지적하였다.

증산성사는 원의 뿌리와 포한의 세상이 된 배경을

「역사의 첫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19)

18) 「典經」, 공사 1장 2절

19) 「典經」, 공사 3장 4절

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증산성사의 해원공사(解冤公事)는 크게 신명계(神明界) 해원, 인간계(人間界)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명계 해원을 보면, 동학신명 해원, 만고역신 해원, 중천신 해원에 대한 공사 등에서 집단적·개별적으로 신명의 원을 풀어주고 있다. 또한 인간계 해원에서는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며, 여성을 해원시키고, 무명의 조선을 상등국으로 끌어 올리는 공사를 하는 등 그 동안 세상에서 고통받고 한이 맺힌 인간들을 위주로 해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계 해원은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한다」 20)

「...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21)

는 말에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삼계에 가득 찬 원(冤)을 원리적으로 그 뿌리부터 풀어내는 증산성사의 해원사상은 그 동안 사랑과 자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과 신명의 대병을 근원적으로 구제하는 미증유의 법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은 인간사회와 신명세계를 근원적으로 정화시키는 원리이며, 상생은 인간사회와 신명세계에서 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세계의 실천윤리요 강령인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원리에서 보면, 선천(先天)의 상극시대(相克時代)는 원(冤)과 한(恨)이 쌓였던 시대이고 후천 상생시대는 원과 한이 근원적으로 사라져, 인류가 화합하고 신명이 조화되어 삼계가 안정되는 우주화평시대(宇宙和平時代)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가 바로 삼계가 개조된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인 것이다.

20) 「典經」, 교법 1장 62절

21) 「典經」, 교법 1장 67절

(4) 宇宙變化와 人類未來의 實狀, 後天仙境世界

대순사상으로 본 후천세계의 실상은 인류가 꿈꾸어 온 이상세계로서 만법 통일시대(萬法統一時代), 무위이화(無爲而化)로 다스려지는 조화시대(造化時代), 인간이 위주가 되는 인존시대(人尊時代), 시방세계에 통달할 수 있는 도통시대(道通時代), 水·火·風의 삼재가 없는 무재해시대(無災害時代), 천지가 개혁하여 결실을 맺는 천지성공시대(天地成功時代)인 것이다.

후천선경세계를 예시하는 내용을 몇가지 관점에서 간추려 보면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후천선경세계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 되고 만인이 평등한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어 인간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안정되고 정치(政治)와 교화(教化)를 담당하는 계층도 성웅을 겸비한 도통군자(道通君子)²²⁾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근원적으로 제거된 세계가 된다.

즉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²³⁾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욕은 고르리니 만일 굶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²⁴⁾

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천선경세계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인간중심의 인존시대(人尊時代)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후천선경세계를 살펴보면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상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웃과

22) 「典經」 교운 1장 34절을 통해 보면 「공자(孔子)는 72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케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上才)는 7일이요, 중재(中才)는 14일이요, 하재(下才)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上等)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中等)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下等)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에서 도통군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23) 「典經」, 교법 2장 56절

24) 「典經」, 교법 2장 58장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25)

「선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 26)

에서 보듯이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희소(稀少)한 자원(資源)을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분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충분한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는 경제적 평등사회(平等社會)가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부(富)의 획득은 건전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한 경제적 정의구현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의 증대를 위해서, 개별인간·집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는 오늘날의 경제행태(經濟行態)는 미래사회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측면에서 후천선경세계를 증산성사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인간의 언어(言語)·문화(文化)·종교(宗教)·문명(文明) 등 모든 영역에서 통일과 통합현상이 일어나 현재와 같은 인간간의 언어·문화·종교·문명의 차이로 인한 대립·갈등·오해·전쟁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후천선경세계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완성된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일체화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증산성사는 후천선경건설(後天仙境建設)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많이 처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기의 통일, 문화의 통일, 종교의 통일, 선천에서의 반목투쟁을 조장해 왔던 분열된 기운을 합일시키는 정치와 교화의 통일, 언어의 통일 등 통일공사(統一公事)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우주의 항구적 화평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될 세계적 목표요 방향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증산성사는 후천선경의 실상에 대해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

25) 『典經』, 예시 80절

26) 『典經』, 교법 1장 63절

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
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올과 탐음의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
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
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
리라」 27)

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이러한 후천선경세계는 그 동안 인류가 걸어온 험한 세상과는 질적·구조
적으로 다른 세계이며, 물질과 정신이 조화되고 신과 인간이 조화되며, 인간
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음과 양의 세계가 합덕되며, 신인류와 신우주가 구현
된 이상향(理想鄉)의 세계인 것이다.

27) 「典經」, 예시 81절.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황원구, 『중국사상의 원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Donglas C. North, R. L. Miller, *The Ecoornics of Public Issues*, 1985

Sir Jarnes George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arment* (Loudou, 1919),

Vol.1

H. B. Alexauder, *North Americau Mythology*, Bostou, 1920